



인터뷰 시리즈 #03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와의 인터뷰

 자유기업원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와의 인터뷰

토머스 W. 해즐릿 (前Reason편집장)

 자유기업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누구인가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 교수는 오스트리아 태생,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25권의 저서와 250편의 논문을 남긴 20세기 최고의 지성입니다. 제가 1977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를 인터뷰할 당시 변화의 흐름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하이에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경제학자였으며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인 존 M.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지성적 스파링 파트너였습니다. 경제정책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 벌인 당시 런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하이에크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케인즈 간의 불꽃튀는 논쟁은 ‘고전경제학’과 새로 유행한 케인즈의 일반이론(1936년)을 앞세운 ‘거시경제학’과의 기억에 남을 일대 대결이었습니다.

케인즈학파는 학문적 주장을 사실상 휩쓸었습니다. 1945년 케인즈가 죽은 후, 하이에크와 그의 고전적 경기순환이론은 대중적인 견해에서 빠르게 퇴조되어갔습니다. 경제정책은 ‘수요관리’의 황금시대로 진입했고 경기순환이론과 하이에크는 경제이론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1950년 시카고 대학교 사회사상위원회^{Committee on Social Thought}의 위원장으로 부임했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1962-1968)와 잘스부르크 대학교(1968-1977)에서 그의 경력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분야인 심리학(지각명령: The Sensory Order, 1952)과 정책학(자유헌법론: 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 법률학(법, 입법 그리고 자유 1-3권: Law, Legislation & Liberty Volumes 1-3, 1973-1979)에서 주로 공헌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의 방향을 명석하게 짚어냈습니다. 그의 케인즈에 대한 독설은 그가 겪었던 이론적 강연에 대한 모욕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회주의 예측 논쟁’은 오스트리아의 중앙계획에 대한 비평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하이에크와 그와 동향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1973, 비엔나 대학교 교수, 하이에크의 스승)는 사회주의를 필연적으로 실패할 경제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 동기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힘을 가지는 자유시장만이 사회적 행동을 지성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는 번영된 사회를 이루는 필수요소라는 것입니다. 하이에크가 쓴 이성적인 경제제도의 표현인 시장가격을 찬양한 세련된 논문이 1945년 ‘미국경제리뷰’의 출간에 기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민한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하이에크가 조심스럽게 표현한 정보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컴퓨터에 의해 효율적으로 중앙계획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동료들과 만족해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의 장을 하나둘 잃는 것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재난이 아니었고 따라서 하이에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마다 빛나는 연구결과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하이에크가 학문적으로 배척되고 있고 퇴보되고 있으며 그의 이론은 부적절한 성격으로 과학 잡지의 모든 양식있는 사람으로부터 반박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후반 학문적 저술가들은 사실성의 재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2차대전 후의 번영은 케인즈 이론을 선호하던 여러 나라에서(주로 미국과 영국)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야기시켰습니다. 충격을 받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많은 사례들이 엄격히 검증되어 완전고용의 개념은 버려졌고 케인즈학파의 사진은 선반 위에서 치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세계를 중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치료방법, 정부재정의 초과지출과 소비를 장려하고 저축을 억제하는 정책의 결과는 ‘불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브리지, 하버드, 버클리, MIT학파들은 무너졌고, 1980년대에는 케인즈학파 이론이 모든 문제의 명백한 근원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호된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옛날의 고전적인 저축, 투자, 균형예산, 경쟁, 생산성 향상 방식이 폭넓게 대두되고 훌륭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케인즈의 정부재정 운용에 대한 처방이 허약한 경제를 살리는 마법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던 정치가들조차 케인즈 이론을 포기한다고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합리적 경제계획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실험을 다 했습니다. 제3세계는 이를 시도한 후, 소득수준이 급속도로 하락했고 결국 원시시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2세계(공산권)는 거대한 경찰국가를 만들어 이를 시도했지만 공중분해되어버렸습니다.

1974년, 즉 30년 동안 경제학 전문가의 위치로부터 밀려나 있었던 하이에크가 갑작스럽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던 해는 서방세계에서 케인즈 이론이 퇴조되고 세계 도처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해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능력자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바뀌었고 정당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즉 노동당, 민주당, 사회민주당(그들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십시오!)이 런던과 워싱턴, 그리고 본에서 아직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하이에크의 선견지명은 이미 세계적 정치운동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세계 정책의 냉엄한 흐름이 하이에크와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는 곧 아담 스미스 이후 가장 위대한 자본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오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 von Hayek는 1899년에 태어나 1992년 3월 23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영면했습니다. 그는 케인즈나 마르크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다행히 인류는 그의 사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와의 인터뷰

질문 박사님의 베스트셀러인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 대해 케인즈는 “이것은 위대한 저서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저는 책의 전체 내용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할 뿐만 아니라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케인즈는 케인즈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된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하이에크 케인즈는 아직 자신이 기본적으로는 고전적인 영국의 자유주의자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가 얼마나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졌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본적 사상은 아직 개인의 자유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갈등을 볼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라는 말은 현재 정치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에 의해 억눌린 자신에 대한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다행스럽게도 그의 사상은 한때의 유행으로 지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케인즈가 만년에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자주 나돌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이에크 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서서 때 순간 유리한 쪽에만 관여했습니다. 그와 마지막 만났을 때(1945년 케인즈가 죽기 3주전) 저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그가 경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은 모두 어리석어. 그 생각들은 1930년 대에는 대단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나를 믿어 주게. 나는 이런 생각을 공식화하려고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케인즈가 제2차대전 후의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울 가장 위대한 전사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의 재정지출로 당시의 실업문제를 한꺼번에 메우고자 했던 케인즈 이론이

그 시점에서는 옳았을까요?

하이에크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통화정책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산업의 격동기나 불황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 경기순환은 오로지 정부 통화당국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까?

하이에크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그것은 정부정책의 심각한 실패의 결과로 보입니다. 실수는 기본적 통화를 정부가 통제하게 하는 반독점 semi-monopoly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은 기본 화폐와 태환되는 이차적 화폐를 다루게 되었고 누구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궁극적 책임을 가지는 통화의 발행을 실제로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독점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문 박사님은 1950년에서 1975년 사이를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케인즈 이론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경제적 성공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왜 우리는 1922년의 독일과 같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을까요?

하이에크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재정적 파탄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율은 그보다 훨씬 온건할 수 있습니다.

번영은 제가 예견한 시기만큼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붕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번의 경기순환 동안 물가폭등에 의한 붕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금본위제도에 기인합니다. 이 제도는 몇 년 내에 팽창에 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통화정책 체제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의도적인 팽창정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수 없을 때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질문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을 12%에서 4.8%로 낮추었고 영국은 30%에서 13%로 줄였습니다. 두 나라 다 공황으로 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의 조정이 대량실업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이에크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광범위한 실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종결시키기 위해 1930년대와 같은 장기간의 실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화정책이 경기상승기와 공황기의 구별없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들은 상승경기를 연장하여 더 나쁜 국면의 공황을 만들었고 디플레이션을 허용함으로써 공황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은 지금 실질적인 실업이 없는 여기서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질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실업을 만들어냅니까?

하이에크 특정 물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사람들을 일자리로 끌어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통화량 증가가 멈추면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일시적인 고실업상태에 들어갔다면 - 한두 해 동안 지금의 두 배의 실업률을 나타낸다고 하면 - 고용보험이나 복지제도 같은 소득을 유지시키는 계획을 소위 회복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러한 계획들은 엄청난 재정수요를 유발하여 이미 500억에서 60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연방정부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이에크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의 혜택을 인플레이션에 맞추든 이를 감축하든간에 엄청난 정치적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적인 개혁 없이는 영구적인 해결책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거대한 복지당국의 재정공포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 보다 합리적인 정부조직을 만들도록 하지 않을까요?

하이에크 아닙니다. 제 유일한 희망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노선을 걷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고, 다른 나라들도 이에 흥미를 가지고 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나라의 헌법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로 이를 바꾸는 실험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새 헌법을 선택해야 하는 스페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헌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헌법개정이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가 가진 정부조직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질문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박사님의 처방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화폐가치의 안정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가에게 통화공급조절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까? 시장의 힘으로 점진적인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하이에크 예, 때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가들을 강요하는 금본위제도라는 구조적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본위제도는, 지금 명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절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규칙으로는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본위제도의 게임 규칙은 만약 경기가 나빠지면 통화를 축소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부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며 차라리 금본위제도를 포기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금본위제도를 부활시킨다면 6개월 내에 포기하는 나라가 생길 것이고 3년 내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금본위제도는 비합리적인 미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본위제도 외에는 보호수단이 없다고 믿고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환상과 미신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금본위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과로 제가 대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여러 번 재화준비 통화제도나 통화공급에서의 경쟁을 지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실질적 대안이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은행제도입니까?

하이에크 그렇습니다. 저는 재화준비 통화제도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확신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재화에 대한 실질증권을 축적하여 준비한다는 생각은 아주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폐가 실제 재화로 태환되어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권위가 통화의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목적을 가진 기관의 손에 통화의 발행을 맡긴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화폐를 재화와 태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화폐발행기관이 통화공급을 조절하게 되고 대중들은 화폐의 안정성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질문 케인즈 학파의 이론은 현대 복지 정부의 정치권력과 거의 완전한 공생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결합이 깨진 것입니까? 어떻게 케인즈 학파가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입니까?

하이에크 저는 이것을 케인즈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즈는 1920년대에 변동 임금을 다시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존하는 임금구조에 통화정책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 통화정책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정부가 노동조합의 효과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상승시키고 정부는 오른 임금으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충분한 통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케인즈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인식으로 인해 우리는 임금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920년대의 영국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디플레이션의 과정을 거쳐 20년대 말에는 가까스로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인들은 실업이 장기화되는 데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두 해만 더 버틸 수 있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974년에 박사님과 노벨상을 공동수상한 군나르 미르달(1898-1987 : 스웨덴 경제학자)은 최근에 출판한 논문에서 노벨경제학상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밀튼 프리드만 박사와 하이에크 박사님이 수상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말은 박사님을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박사님이 ‘인식론적 우려로 고통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박사님의 인식론에 대한(경제학과 다른 학문분야에서) 수많은 논문들의 기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경제학의 방법론에 초점을 둔 박사님의 노벨상 수상연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르달도 들었겠지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르달의 잘못된 발언은 그의 무지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악의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것이 유럽의 일반적인 학문 환경의 공정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이에크 아니오, 이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례없는 지성적 거만이 결집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미르달은 심지어 케인즈 이전에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통화에 관한 학설이니 가치니 하는 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1920년대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주제에 대해 제

가 틀렸다고 하는 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지금은 다시 출판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가 훌륭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미르달이 전형적인 경우는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지성적, 학문적 환경이 박사님의 생각에 이보다 훨씬 더 호의적입니까?

하이에크 예, 미르달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젊은 세대들이 제 주장을 따라 제 주변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르달이 가진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이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 생물학, 심리학 같은 학문들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현상들을 다루는 물리학 같은 것에 비해 정형화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리학이 기본적으로 간단한 현상을 다룬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리학 이론을 설명할 때는 단지 몇 가지 변수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물리학 서적에 나오는 공식들을 살펴보면 물리학의 일반법칙을 설명하는 공식들 중 두세 가지를 넘는 변수를 가진 공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도 두세 가지의 변수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특정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그 전체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양의 특정 자료들로 공식의 빈칸들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리학에 비하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야망에 찬 젊은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물리학 분야에서와 같이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과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노력해 봐야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발견해 낼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막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물리학적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과 유사하게 사회적 현상들을 지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집단의 집합적 의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를 창조했다면, 지성적 발전과정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광범위한 통념들의 효용성을 중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1947년에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국제적 모임인 몽 펠레린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 1947년 하이에크가 주선하여 자유주의의 미래를 위

해 미국, 유럽학자 39명이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몽 펠레린에서 처음 회합을 가진 이래 1997년에 50주년을 맞이함)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임이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셨습니까?

하이에크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이 모임의 주 목적이 전체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실제적 자유의 기능을 아주 소수의 분야에서만 발견하고 이를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인 학설로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이해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르텔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확고한 학설들을 발전시키고 몇 개의 국제적 토론 그룹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지는 작년에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박사님을 포함하여 사회과학을 이끌어가는 여덟 명의 세계적 학자들과 인터뷰한 특집 커버 스토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몇몇 학자들이 ‘노예의 길’의 구절들을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복지 정부가 예전에는 개인생활이었던 많은 분야에 개입한 결과라고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이론이 학문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십니까? 더 많은 학자들이 자유와 관료주의 사이의 근본적 갈등을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이에크 물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지식층에까지 확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5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세계의 중심에 저 혼자 서 있던 것에서 이제는 제가 어딜 가든지 제 곁에 수십 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론을 조성하기엔 너무나 적은 숫자이고 때때로 저는 절망적인 경험을 합니다. 저는 2주일 전 어느 날 오후, 뉴욕의 브렌타노 서점에 들렀을 때 어떤 종류의 책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가를 살펴보고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 책들은 희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보게 되면 모든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지금 칼 멩거, 뵘 바베르크, 루드비히 폰 미제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가는 선봉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와 밀튼 프리드만 박사가 있는 시카고학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이에크 시카고학파는 근본적으로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들은 집합과 평균, 총통화량, 총 물가수준, 전체 고용 등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계적 중요성은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고 인상적입니다.

프리드만의 ‘총량이론^{quantity theory}’을 예로 들어봅시다. 저는 총량이론이 많은 사실을 간과한 미완성된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글을 써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에게 일반 대중들이 이것을 계속 믿게 해 달라고 기원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밀튼 프리드만같이 고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처음의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궁극적으로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들입니다.

프리드만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 주장은 믿지 않는 실증주의의 거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경제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과업은 우리의 지식을 정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 이외에 통계학적 정보를 가진다고 해서 더 현명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통계학적 연구가 이론적으로 우리를 어딘가에 데려다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박사님은 실업에 대한 케인즈학파의 설명이 전통경제학의 설명을 물리치고 받아들여진 것이 전자는 통계적 검증을 했고 후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이에크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밀튼의 통화주의는 저보다 케인즈 학파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스톡홀름의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알렉산더 솔제니친^{Alexandr Solzhenitsyn}을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하이에크 저는 제 자신이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이외에도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러시아로 출발해야 했고 언어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토론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질문 서방세계의 몰락에 관한 그의 논제에는 어떤 정당성이 있습니까?

하이에크 제 생각으로는 솔제니친이 서방세계 정책들의 피상적인 모습에 과도한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서방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의견의 귀결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당연히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치가들의 행동이 서방세계의 지식인들이 가진 믿음의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제니친이 서방세계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곧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박사님의 스승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1920년에 ‘사회주의^{Socialism}’를 썼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특히 동유럽의 학자들은 미제스의 사려깊은 비평에 감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볼 때 미제스와 로드 로빈스, 그리고 50년 전의 박사님의 사색적인 강연에 아직도 몰두해 있습니다. 이 논쟁의 현재 양상은 어떻습니까?

하이에크 저는 사회주의자들이 지적으로 설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좀 개선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가격이란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구체화해주는 안내자라는 것을 당신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노동 분야에서도 단순히 현장에 내려가면 같은 이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의 분배 문제도 장점이나 필요의 개념에 수반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 가격을 포함해서 어떤 가격이 알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가면 알 수 있고, 시장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분배 외에는 어떤 다른 분배도 없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에는 지성적인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주의 경제가 기술, 혁신, 서방세계 자본주의로부터 차용해 간 가격정보와 자국내 암시장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이에크 중세시대와 같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것으로 과잉인구를 줄이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러시아에도 경제적 진보가 있었는데 왜 이런 경제가 계속 존재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러시아에도 서방에서 발전한 기술을 사용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마지막까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박사님의 사회철학에서 흥미 있는 것은 가치와 장점이 반드시 구별되는 두 가

지 별개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청교도적 윤리이든, 평등주의이든 정의의 개념에 대한 조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상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덕사회’에서는 가치와 장점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선호하는 자유시장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이에크 저는 최근에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 본 결과 여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란 사회적 정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당연히 사회적 정의는 장점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왜 사회적 정의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하이에크 정의는 개인의 품행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삶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품행을 정하는 규칙은 많은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가 이외에는 상황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족은 죽음을 많이 겪고 어떤 가족은 모든 자녀가 무사히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에게 불공평함에 대해 항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이 행동을 결정하는 끝없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만든 것도 아닌 시장은 누구도 고안해 내지 않은 분배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을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 시장을 설계하려고 하는 생각은 시장을 포기하고 누군가가 모두가 얼마씩을 가질 것인가를 정해주는 계획경제로 바꾸려는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가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 영국은 돌이킬 수 없는 ‘노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이에크 아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노예의 길은 ‘당신이 가는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영국의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

하이에크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이익집단에 시장의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역사적 믿음으로 노동조합은 대중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퍼져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변화시킴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영국 친구들이 케인즈가 믿었던 것처럼 영국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확신이 이러한 파멸적 운명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민족의 성향은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습은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현재의 영국의 관습이 영국인의 모든 성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타고난 ‘영국인의 성향’에 의존해서는 그들을 운명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 제도 아래서 급속히 사라져가는 오래된 것들을 되살려가면서 새로운 관습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대중의 의견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이에크 당신은 긍정적인 움직임과 부정적인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그만 두는가에 따라 당신이 지시하고 이끌 수 없는 발전에 대한 정부 역할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국기업이 비효율적이고 나태하다는 일반적인 항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관습의 결과입니다. 만약 좀 더 많은 경쟁이 있게 되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곧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행하는 변명을 위한 새로운 경향을 창조하는 관습입니다.

질문 큰 정부가 정말로 범죄와 같다면, 왜 스웨덴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이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이에크 우리는 일반화해서 말해서는 안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받지 않은 두 나라이고 상당량의 유럽 자본의 보관창고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아직 정부의 간섭을 전통적인 본능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

위스는 정치가들이 너무 진보적이 되면 즉시 국민투표를 통해 ‘노!’라고 말하는 놀라운 국가의 실례입니다.

질문 하지만 스웨덴은 상당히 성공적인…….

하이에크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제가 가본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사회적 불만이 더 많은 곳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과거의 신조에 대한 의심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948년부터 약 10년 전까지 서독은 목적을 가진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독일의 기적^{German Miracle}” 이라고 불리는 경제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이 현재 굳건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미국의 분석가들은 “독일의 기적” 을 만들어낸 돌풍이 소위 프라이부르크학파라고 불리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의 철학과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독일의 예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하이에크 첫째로, 독일이 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 독일 수상은 -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야기하건대 -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최근까지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주장한 노동조합의 지도자는 실패해 왔습니다.

독일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들이 겪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위대한 오스트리아의 학자인 고故 조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 : 1883-1950)는 1942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의 허약성에 기인(마르크스가 예언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성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자가 씨를 뿌린 놀라운 경제적 풍요의 꽃은 관료와 행정가의 시대에 수확되고, 풍요를 가능하게 했던 혁신가와 기업가들도 이들에 의해 대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교대로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인적 번영에 대한 존중과 폭넓은 수용의 사회적 구조를 밑바닥에서부터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슈페터의 이론과 박사님의 노예의 길의 이론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하이에크 여기에는 본질에 대한 예측이라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슈페터는 역설적인 것을 정말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는 정말로 훌륭한 것이지만 오래 가지 않고, 사회주의는 매우 나쁘지만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말함으로써 충격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즐기는 패러독스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의 숨은 뜻과 그가 정확히 관찰한 것은 어떤 견해의 경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대의 것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이런 주장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믿게 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식별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상의 혁명은 고유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발전과정에 의존합니다. 제 말의 뜻은 제가 여론들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지만 여론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감히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론이 온건하게 전환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슈페터의 태도는 이성을 넘어선 완전한 절망과 환멸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자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십니까?

하이에크 예, 제한적인 낙관론입니다. 저는 지금이 지성적인 회귀의 길에 있으며 반대 방향의 운동이 역전할 수 없도록 하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여론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던, 제가 스무살이던 시절에 비해서는 더욱 낙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변화가 제때에 온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The Road from Serfdom

F. A. Hayek interviewed by Thomas W. Hazlett

Transcript in English

F. A. Hayek must have sensed something in the wind at about the time I interviewed him in Los Angeles in May 1977. In the 1930s and 40s, Hayek had been the second most famous economist on the planet, best known as John Maynard Keynes's intellectual sparring partner. On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economic policy, the debate pitting Professor Hayek of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gainst Professor Keynes of Cambridge University sparked a memorable confrontation between classical economics and the new-fangled "macroeconomics" of Lord Keynes's 1936 General Theory.

The Keynesians swept academic arguments in a virtual shut-out. With Keynes's death in 1945, in fact, Hayek (and the classical trade cycle theory) quickly faded from public view. Economic policy entered a golden age of "demand management" in which the business cycle was rendered obsolete, and Hayek moved out of economic theory altogether. In 1950 he went to the University of Chicago, where he chaired the Committee on Social Thought, finishing his career at the University of Freiburg(1962-68) and the University of Salzburg(1968-77).

He embarked upon major contributions in such new fields as psychology(The Sensory Order, 1952), political theory (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 and law (Law, Legislation & Liberty, Volumes I-III, 1973-79).

He was wise to steer clear of economics. For his quibble with Keynes was not the only humiliation he had suffered in rarified theoretical discourse. The famous Socialist Calculation Controversy was prompted by the Austrian critique of central planning. From the 1920s until the '40s, Hayek and his countryman Ludwig von Mises argued that socialism was bound to fail as an economic system because only free markets -powered by individuals wheeling and dealing in their own interest- could generat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intelligently coordinate social behavior. In other words, freedom is a necessary input into a prosperous economy. But even as Hayek's elegant essay extolling market prices as the signals of a rational economy was hailed as a seminal contribution upon its publication i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in 1945, shrewd socialist theorists pro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ir peers that central planning could be streamlined so as to solve, with really big computers, the very information problem that F. A. Hagek had so courteously exposed.

Losing a scholarly debate or two is not the worst that can befall a human being of talent, and Hayek was not destroyed. He went on to publish brilliant work in subsequent years. But within the economics profession it is no secret that Hayek was an academic outcast, a throwback, a marginal character whose ideas had been neatly disproven to all reasonable men in the scientific journals of his day.

But then something bizarre happened. The late 20th century decided to provide a reality check on the academic scribblers. The 1960s and '70s saw post-war prosperity ignite into an inflationary spiral in the very countries that had embraced Keynesianism (mainly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Shocking to the peer-review process, which had rigorously proven otherwise on many occasions, full employment

could not be maintained via off-the-shelf Keynesian bromides. The traditional therapy -stimulate consumption and penalize savings with a healthy infusion of government deficit spending- was now being refereed by the real world, and the results were found “nonrobust.” The macro models of Cambridge, Harvard, Berkeley, and MIT fell apart, and by the 1980s the very solutions that Keynes had hustled were being painfully thwacked as precisely the root of our troubles.

Suddenly the old classical medicine -savings, investment, balanced budgets,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growth- were popularly claimed to be the economic-policy goal of good government. Even the politicians, so bubbly to receive Keynes’s prescription for government spending as the magical elixir with which to treat an ailing economy, had publicly abandoned Keynesianism.

And the possibility of rational economic planning under socialism? Yes, we ran that experiment as well. The Third World tried it and promptly dropped to income levels last recorded in the Pleistocene Epoch.

The Second(Communist) World tried it in massive poliestate doses and well dissolved.

The trends away from Keynesianism in the West and from socialism everywhere else were just beginning to assert themselves when Hayek -out of the economics profession for, essentially, 30 years- was surprisingly awarded a Nobel Prize in Economics in 1974. Quickly, he was transformed from goofball to guru. And not without justification. By the late 1970s with the Labor, Democratic,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oh come on, you remember them: Think, now think!) still in power in London, Washington, and Bonn-Hayek’s vision had already spotted global political movements on the horizon. The glacial worldwide policy shifts of the 1980s were cautiously anticipated by Hayek in this (never before published) interview. He seemed to sense that soon it would not be a sign of disrespect to be dubbed the greatest philosopher of capitalism since Adam Smith.

Sometimes you have to live a long time just to be proved right. When Friedrich August von Hayek, born in 1899, died March 23 in Freiberg, Germany, he had outlived both Keynes and Marx. Happily for the human race, so have his ideas.

[Contributing Editor Thomas W. Hazlett interviewed Hayek in 1977, shortly before starting graduate school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Reason Of your bestselling *The Road to Serfdom*, John Maynard Keynes wrote: “In my opinion it is a grand book…… Morally and philosophically I find myself in agreement with virtually the whole of it: and not only in agreement with it, but in deeply moved agreement.” Why would Keynes say this about a volume that was deeply critical of the Keynesian viewpoint?

Hayek Because he believed that he was fundamentally still a classical English liberal and wasn't quite aware of how far he had moved away from it. His basic ideas were still those of individual freedom. He did not think systematically enough to see the conflicts. He was, in a sense, corrupted by political necessity. His famous phrase about, "in the long run we're all dead," is a very good illustration of being constrained by what is now politically possible. He stopped thinking about what, in the long run, is desirable. For that reason, I think it will turn out that he will not be a maker of long-run opinion, and his ideas were of a fashion which, fortunately, is now passing away.

Reason Did Keynes turn around in his later years, as has frequently been rumored?

Hayek Nothing as drastic as that. He was fluctuating all the time. He was in a sort of middle line and he was always concerned with expediency for the moment. In the last conversation I had with him (about three weeks before his death in 1945). I asked him if he wasn't getting alarmed about what some of his pupils were doing with his ideas. And he said, "Oh, they're just fools. These ideas were frightfully important in the 1930s, but if these ideas ever become dangerous, you can trust me-I'm going to turn public opinion around like this." And he would have done it. I'm sure that in the post-war period Keynes would have become one of the great fighters against inflation.

Reason Was the Keynes thesis that government spending is needed to bolster aggregate demand in times of unemployment correct at one time?

Hayek No. Certainly not. But, of course. I go much further than this. I believe that if it were not for government interference with the monetary system, we would have no industrial fluctuations and no periods of depression.

Reason So trade cycles are caused solely by government monetary authorities?

Hayek Not that directly. As you put it, it would seem that it results from deliberate mistakes made by government policies. The mistake is the creation of a semi-monopoly where the basic money is controlled by government. Since all the banks issue secondary money, which is redeemable in the basic money, you have a system which nobody can really control. So it's really the monopoly of government over the issue of money which is ultimately responsible. Nobody in charge of such a monopoly could act reasonably.

Reason You have written that the period from about 1950 to 1975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 Prosperity. If the Keynes thesis is incorrect, why the tremendous economic success? Why, for instance, haven't we experienced a hyperinflation on the order of Germany in 1922?

Hayek Because the inflation in Germany was not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rosperity but was forced upon them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If you inflate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rosperity you can do so at a much more moderate rate.

The prosperity did last longer than I anticipated. I always expected its breakdown, but I thought it would come much sooner. I was thinking in terms of the collapse of the inflationary booms during past trade cycles.

But those collapses were due to the gold standard, which put a break on those expansions after a few years. We never had a time where a policy of deliberate expansion was unlimited by any framework of monetary order.

We've come to an end only when has been seen we cannot accelerate inflation so fast that we can still maintain prosperity.

Reason The United States has cut inflation from 12 percent to 4.8 percent, Britain from 30 percent to 13 percent -both without Depression- type setbacks. Doesn't this offer hope that economic adjustments can be made without massive unemployment?

Hayek I don't know why you suggest this. It has been accomplished, very much, through extensive unemployment. I think it is certainly true that ending an inflation need not lead to that long-lasting period of unemployment like the 1930s, because then the monetary policy was not only wrong during the boom but equally wrong during the Depression. First, they prolonged the boom and caused a worse depression, and then they allowed a deflation to go on and prolonged the Depression. After a period of inflation like the past 25 years, we can't get out of it without substantial unemployment.

Reason How does inflation cause unemployment?

Hayek By drawing people into jobs which exist only because the relative demand for the particular things is temporarily increased, and these employments must disappear as soon as the increase in the quantity of money ceases.

Reason Yet, i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went through a period of temporarily high unemployment-say we have double the current rate of unemployment for one to two years -wouldn't all the automatic income-maintenance programs,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welfare, etc., run up such an enormous bill as to bankrupt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already runs a

deficit of \$50 billion or \$60 billion in a so-called recovery period?

Hayek Yes, they probably would. There would be an enormous political struggle on the question of whether social-security benefits ought to be adapted to inflation or cut down. I don't think that you can effect a permanent cure without a substantial alteration of the social-security system.

Reason Will the horror of financing this colossal welfare bureaucracy prove the stimulus to "shock" us into a more rational government framework?

Hayek No. My only hope really is that some minor country or countries which for different reasons will have to construct a new constitution will do so along sensible lines and will be so successful that the others find it in their interest to imitate it. I do not think that countries that are rather proud of their constitutions will ever really need to experiment with changes in it. The reform may come from, say, Spain, which has to choose a new constitution. It might be prepared to adopt a sensible one. I don't think its really likely in Spain, but it's an example. And they may prove so successful that after all it is seen that there are better ways of organizing government than we have.

Reason To avoid inflation, your prescription has been to advocate that monetary policy be pursued with the goal of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value of money. Is it necessary to trust the politicians to regulate the money supply? Can't market forces adjust to correct for a gradual deflation?

Hayek Yes, they do occasionally. The trouble is, in the mechanical system what forces politicians is the gold standard. The gold standard, even if it were nominally adopted now, would never work because people are not willing to play by the rules of the game. The rules of the game that the gold standard requires [say] that if you have an unfavorable balance of trade, you contract your currency. That's what no government can do -they'd rather go off the gold standard. In fact, I'm convinced that if we restored the gold standard now, within six months the first country would be off it and, within three years, it would completely disappear.

The gold standard was based on what was essentially an irrational superstition. As long as people believed there was no salvation but the gold standard, the thing could work. That illusion or superstition has been lost. We now can never successfully run a gold standard. I wish we could. Its largely as a result of this that I have been thinking of alternatives.

Reason You have, at various times, championed a commodity-reserve monetary system and competition in the money supply. Are these practical alternatives to a

government controlled central banking system?

Hayek Yes. I have been convinced that while the idea of the commodity-reserve system is a good one, practically it is unmanageable. The idea of accumulating actual stocks of commodities as reserves is so complex and impractical that it just cannot be done.

Then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necessity of actual redemption of the real commodities is only necessary if you have to place a discipline on an authority which otherwise has no interest in keeping its currency stable. If you place the issue of money in the hands of firms whose business depends upon their success in keeping the money they issue stable, the situation changes completely. In that case, there is no necessity of depending upon their obligation to redeem in commodities : it depends on the fact that they must so regulate the supply of their money that the public will accept the money for its stability. This is better than anything else.

Reason The Keynesian economic formula seeks out a nearly perfect symbolic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force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At what point can this marriage be broken? How can the Keynesians be politically defeated?

Hayek I really should begin with Keynes himself. Keynes despaired in the 1920s of the possibility of again making wages flexible. H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must accept wages as they are and adjust monetary policy to the existing wage structure. That, of course, forced him to say “I don’t want any restriction on monetary policy because I have to adjust monetary policy to a given situation.”

But he overlooked that, at that very moment, the trade unions knew that the government was under an obligation to correct the effect of the trade-union policy, and so we get a hopeless spiral. The unions push up wages, and government has to provide enough money to keep employment at these wages, and this leads into the inflationary spiral. This came out of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of Keynes in the short run that we can’t do anything about the rigidity of wages.

In fact, the British in the 1920s were very near success. The very painful, and silly, process of deflation was very nearly successful at the end of the 20s. Then they got frightened by the long period of unemployment. I think if they had lasted a year or two longer they probably would have succeeded.

Reason Gunnar Myrdal, your co-winner for the Nobel Prize in 1974, recently published an article advocating the abolition of the Nobel Prize for economics, apparently as a reaction to the awarding of the prize to Milton Friedman and yourself. His most remarkable statement is his reference to you regarding your lack of concern. Specifically, that you have “certainly never been much troubled by epistemological worries.”

Not only does the statement summon shock on the basis of your numerous writings on the very question of epistemology (in economics as well as in other fields), but your Nobel speech, delivered into Myrdal's own ears, centered on the subject of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Is Myrdal's misstatement prompted by ignorance or malice? And is this a fair sampling of the general academic environment throughout Europe?

Hayek No, it is certainly a rather extreme case combined with an intellectual arrogance that, even among economists, is rare. Myrdal has been in opposition on these issues even before Keynes came out. His book on monetary doctrines and values and so on dates from the late 1920s. He has his own peculiar view on this subject which I think is wrong. His book couldn't even be reproduced now. I don't think he has ever been a good economist.

Reason So Myrdal is not typical? The intellectual and academic environment is, on the whole, much more hospitable to your ideas?

Hayek Oh, much more than Myrdal, yes. And, of course, the younger generation is coming around to my sort of view. In a sense, I would say that the great problem is still a methodological one but not the one Myrdal has in mind. I believe that economics and the sciences of complex phenomena in general, which include biology, psychology, and so on, cannot be modeled after the sciences that deal with essentially simple phenomena like physics.

Don't be shocked when I call physics essentially simple phenomena. What I mean is that the theories which you need to explain physics need to contain very few variables. You can easily verify this if you look into the formula appendix to any textbook on physics, where you will find that none of the formulas which state the general laws of physics contain more than two or three variables.

You can't explain anything of social life with a theory which refers to only two or three variables. The result is that we can never achieve theories which we can use for effective prediction of particular phenomena, because you would have to insert into the blanks of the formula so many particular data that you never know them all. In that sense, our possibility both of explaining and predicting social phenomena is very much more limited than it is in physics.

Now, this dissatisfies the more-ambitious young men. They want to achieve a science which both gives the same exactness of prediction and the same power of control as you achieve in the physical sciences. Even if they know they won't do it, they say, "We must try. We ultimately will discover it." When we embark on this process, we want to achieve a command of social events which is analogous to our command of physical affairs. If they really created a society which was guided by the collective will of the group, that would just stop the process of intellectual

progress. Because it would stop this utilization of widely dispersed opinion upon which our society rests and which can only exist in this very complex process which you cannot intellectually master.

Reason In 1947 you founded the Mont Pelerin Society, an international group of free-market scholars. Has its progress pleased you?

Hayek Oh yes. I mean its main purpose has been wholly achieved. I became very much aware that each of us was discovering the functioning of real freedom only in a very small field and accepting the conventional doctrines almost everywhere else. So I brought people together from different interests. Any time one of us said, “Oh yes, but in the field of cartels you need government regulation,” someone else would say, “Oh no, I’ve studied that.” That was how we developed a consistent doctrine and some international circles of communication.

Reason U.S. News & World Report did a special cover story last year in which they interviewed eight leading social scientist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yourself, on the question: “Is Democracy Dying?”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was that several of the other thinkers seemed to be reciting passages out of *The Road to Serfdom* in identifying the current crisis as a result of the involvement of the welfare state in vast areas of our formerly private lives. Do you see this thesis gaining academic adherents? Are more intellectuals beginning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bureaucracy, so to speak?

Hayek No doubt, yes. That the ideas are spreading, there is no doubt. What I cannot judge is what part of the intelligentsia has yet been reached. Compared with what the situation was 25 years ago, instead of a single person in a few centers of the world, there are now dozens wherever I go. But that is still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people who make opinion, and sometimes I have very depressing experiences. I was quite depressed two weeks ago when I spent an afternoon at Brentano’s Bookshop in New York and was looking at the kind of books most people read. That seems to be hopeless ; once you see that you lose all hope.

Reason You currently carry the torch for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representing a great tradition from Carl Menger to Bohm-Bawerk to Ludwig von Mises to yourself. What is the most important way in which the Austrians differ with Milton Friedman and the Chicago School?

Hayek The Chicago School thinks essentially in “macro-economic” terms. They try to analyze in terms of aggregates and averages, total quantity of money, total price level, total employment --all these statistical magnitudes which, I think, is a

very useful approach and even quite impressive.

Take Friedman's "quantity theory." I wrote 40 years ago that I have strong objections against the quantity theory because it is a very crude approach that leaves out a great many things, but I pray to God that the general public will never cease to believe in it. Because it is a simple formula which it understands. I regret that a man of the sophistication of Milton Friedman does not use it as a first approach but believes it is the whole thing. So it is really on methodological issues, ultimately, that we differ.

Friedman is an arch-positivist who believes nothing must enter scientific argument except what is empirically proven. My argument is that we know so much detail about economics, our task is to put our knowledge in order.

We hardly need any new information. Our great difficulty is digesting what we already know. We don't get much wiser by statistic information except in gaining information about the specific situation at the moment. But theoretically I don't think statistical studies get us anywhere.

Reason You have written that the main reason that the Keynesian explanation of unemployment was accepted over the classical explanation was that the former could be statistically tested while the latter could not.

Hayek From that point of view, Milton's monetarism and Keynesianism have more in common with each other than I have with either.

Reason You met Alexander Solzhenitsyn at the Nobel ceremonies in Stockholm. How did you find him?

Hayek I was strongly confirmed in my very high opinion of the man. He is a very impressive figure in addition to his works. But I had no chance to argue with him because he had just come out of Russia and his capacity for communicating orally was very limited.

Reason What validity is there in his thesis concerning the collapse of the West?

Hayek I think he is unduly impressed by certain superficial features of Western politics. If he believes, as he does believe, that what our politicians do is a necessary consequence of opinions generally held in the West, he really must come to that conclusion. Fortunately, I think, what the politicians do is not an expression of the profound belief of the more intelligent people in the West, and I hope Solzhenitsyn will soon discover that there are people who can see further than seems to be shown by the policies of the West.

Reason Your teacher, Ludwig von Mises, wrote *Socialism* in 1920. It became the opening round in a controversy that is still brewing over whether a socialist economy was even logically possible. Socialist economists, particularly in Eastern Europe, have thanked Mises for his thoughtful criticisms and have generally engaged in a thought-provoking discourse with Mises, Lord Robbins, and yourself for the past half-century. What is the present state of the debate?

Hayek I've always doubted that the socialists had a leg to stand on intellectually. They have improved their argument somehow, but once you begin to understand that prices are an instrument of communication and guidance which embody more information than we directly have, the whole idea that you can bring about the same order based on the division of labor by simple direction falls to the ground. Similarly, the idea [that] you can arrange for distributions of incomes which correspond to some conception of merit or need. If you need prices, including the prices of labor, to direct people to go where they are needed, you cannot have another distribution except the one from the market principle. I think that intellectually there is just nothing left of socialism.

Reason Could socialist economies exist without the technology, innovations, and price information they can borrow from Western capitalism and domestic black markets?

Hayek I think they could exist as some sort of medieval system. They could exist in that form with a great deal of starvation removing excess population. It's all a question of why should an economy not continue to exist. But whatever economic advance Russia has achieved was, of course, achieved by using th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West. I know that the Russians would be the last ones to deny it.

Reason A very interesting part of your social philosophy is that value and merit are and ought to be two distinct qualities. In other words, individuals should not be remunerated in accordance with any concept of justice, whether it be the Puritan ethic or egalitarianism. Do you find many free-market advocates falling into this thinking, that value and merit should be equated in a "truly moral society"?

Hayek I think there is a little shift recently as a result of my outright attack on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It is now turning on the problem of whether social justice has any meaning at all and, of course, social justice is essentially based on some concept of merit. I'm afraid I have shocked my closest friends by denying that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has any meaning whatever. But I haven't been persuaded that I was wrong.

Reason Well, then, why isn't there any such thing as social justice?

Hayek Because justice refers to rules of individual conduct. And no rules of the conduct of individuals can have the effect that the good things of life are distributed in a particular manner. No state of affairs as such is just or unjust: it is only when we assume that somebody is responsible for having brought it about.

Now, we do complain that God has been unjust when one family has suffered many deaths and another family has all of its children grow up safely. But we know we can't take that seriously. We don't mean that anybody has been unjust.

In the same sense, a spontaneously working market, where prices act as guides to action, cannot take account of what people in any sense need or deserve, because it creates a distribution which nobody has designed, and something which has not been designed, a mere state of affairs as such, cannot be just or unjust. And the idea that things ought to be designed in a 'just' manner means, in effect, that we must abandon the market and turn to a planned economy in which somebody decides how much each ought to have, and that means, of course, that we can only have it at the price of the complete abolition of personal liberty.

Reason Is Britain irrevocably on the road to serfdom?

Hayek No, not irrevocably. That's one of the misunderstandings. The Road to Serfdom was meant to be a warning: "Unless you mend your ways, you'll go to the devil." And you can always mend your ways.

Reason What policy measures are currently possible to reverse the trend in Britain?

Hayek So long as you give one body of organized interests, namely the trade unions, specific powers to use force to get a larger share of the market, then the market will not function. And this is supported by the public because of the historic belief that in past the trade unions have done so much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oor that you must be kind to them. So long as this view is prevalent, I don't believe there is any hope. But you can induce change. We must now put our hope in a change of attitude.

I'm afraid many of my British friends still believe, as Keynes believed, that the existing moral convictions of the English would protect them against such a fate. This is non-sense. The character of a people is as much made by the institutions as the institutions are made by the character of the people. The present British institutions contribute everything to change the British character. You cannot rely on an inherent "British character" saving the British people from their fate. But you must create institutions in which the old kinds of attitudes will be revived which are

rapidly disappearing under the present system.

Reason So there is really nothing the government can do prior to a change in public opinion?

Hayek You can distinguish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moves. The government should certainly cease doing a great many things it does now. In that sense it depends upon the government ceasing to do things, and then that would open the possibility for other developments which you cannot guide and direct. Take the general complaint about British entrepreneurs being inefficient, lazy, and so on. All of this is a result of institutions. You would soon drive out the inefficient entrepreneur if there was more competition. And you would soon find that they would work hard if it was in their interest to do so. It is the set of institutions which now prevails which creates the new attitudes which are so inimitable to prosperity.

Reason If big government is really the culprit, why do Sweden and many Scandinavian welfare states seem to be prospering?

Hayek Well, we mustn't generalize. Sweden and Switzerland are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escaped the damages of two wars and have become repositories of a large part of the capital of Europe. In Switzerland, there is still some traditional instinct against government interference. Switzerland is a marvelous example where, when the politicians become too progressive, the people hold a referendum and promptly say, "No!"

Reason Yet Sweden is reasonably successful.....

Hayek Yes. But there is perhaps more social discontent in Sweden than in almost any other country I have been. The standard feeling that life is really not worth living is very strong in Sweden. Although they can hardly conceive of things being different than what they're used to, I think the doubt about their past doctrines is quite strong.

Reason From 1948 until about a decade ago, West Germany pursued pointedly free-market policies and experienced an economic recovery so vital as to be judged a "German Miracle." Yet, the Social Democrats are firmly in power today, and some American analysts have suggested that this indicates a basic flaw in the philosophy or strategy of the so-called Freiburg School, the group of free-market economists that led the "German Miracle." What mistakes did they make and what can we learn from their example?

Hayek First, the idea that the Germans are now governed by a socialist government is just wrong. The present German chancellor admits -perhaps not publicly, but in conversation- that he is not a socialist. Secondly, until recently, the German trade unions were led by people who really knew what a major inflation is. And, until recently, all you needed to tell German trade unionists when they made excessive wage claims is that “this will lead to inflation,” and they would collapse.

The German prosperity is due, to a very high degree, to the reasonableness of the German trade-union leaders which, in turn, was due to their experience with inflation.

Reason A fellow Austrian great, the late Joseph Schumpeter, wrote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in 1942. In that book, Schumpeter predicted the collapse of capitalism due, not to its weakness(as Marx had predicted), but due to its strengths. Specifically, the tremendous economic abundance that would flower from the capitalist seed would produce an age of bureaucrats and administrators, displacing the innovators and entrepreneurs that had made it all possible. This, in turn, would undermine the social fabric upon which capitalism rested : a widespread acceptance and respect of private property. How does Schumpeter’s thesis concerning the inherent political instability of capitalism fit in with your own theories on our road to serfdom?

Hayek Well, there is some similarity in the nature of the prediction. But Schumpeter was really enjoying a paradox. He wanted to shock people by saying that capitalism was certainly much better but it will not be allowed to last, while socialism is very bad but it is bound to come. That was the sort of paradox he just loved.

Underlying this is the idea that certain trends of opinion which he correctly observed were irreversible. Although he claimed the opposite, he had, in the last resort, really no belief in the power of argument. He took it for granted that the state of affairs forces people to think in a particular manner.

This is fundamentally false. There is no simple understanding of what makes it necessary for people under certain conditions to believe certain things. The evolution of ideas has its own laws and depends very largely on developments which we cannot predict. I mean, I’m trying to move opinion in a certain direction, but I wouldn’t dare to predict what direction it will really move. I’m hoping that I can just divert it moderately. But Schumpeter’s attitude was one of complete despair and disillusionment over the power of reason.

Reason Are you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freedom?

Hayek Yes. A qualified optimism. I think there is an intellectual reversion on the way, and there is a good chance it may come in time before the movement in the opposite direction becomes irreversible. I am more optimistic than I was 20 years ago, when nearly all the leaders of opinion wanted to move in the socialist direction. This has particularly changed in the younger generation. So, if the change comes in time, there still is hope.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와의 인터뷰 (비매품)

2020년 4월 1일 1판 1쇄 발행
 2020년 8월 13일 1판 2쇄 발행

저자 토머스 W. 해즐릿
 발행자 최승노
 발행처 자유기업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전화 02-3774-5000 · 팩스 0502-797-5058



* 이 자료는 2020년 4월 1일 자유기업센터 발간물의 PDF 버전입니다.